18.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ank you for applying for the winter internship program. I'm writing this email to provide you with important information regarding the next step in your application process. Based on the materials you submitted, we've recognized your genuine interest in advancing your technical expertise and software development skills. As mentioned before, additional documentation is required before moving to the final stage. We kindly ask that you provide the original copies of the certificates you listed in your application. Please send the documentation via mail by November 7. Thank you.

① 자격증의 온라인 출력 방법을 안내하려고

② 면접 일정의 변경을 공지하려고

③ 인턴십 프로그램을 홍보하려고

④ 자격증의 원본 제출을 요청하려고

⑤ 인턴십 프로그램이 취소되었음을 알리려고

겨울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귀하에게 지원 과정의 다음 단계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이 이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출한 자료에 기반하여, 저희는 기술적 전문 지식과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증진에 대한 귀하의 진심 어린 관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에 언급하였듯이,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저희는 귀하께서 지원서에 작성한 자격증의 원본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11월 7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9. 다음 글에 드러난 Mike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Mike stared at the blinking cursor on the screen, his heart sinking deeper with each passing hour. He had rewritten the final sentence over and over, yet nothing felt right. The pressure to finish was mounting — he was so close, but the words didn't come to his mind. He buried his face in his hands with a deep sigh. Then, in the stillness, something sparked. With a rush, he typed a single sentence. A big smile spread across his face. "This is it! It's perfect!" Mike shouted in joy, jumping up from his chair. He clapped his hands with delight. It felt like the final puzzle piece sliding into place. He had finally completed what he had long dreamed of.

① joyful → regretful

② frustrated → happy

③ satisfied → guilty

④ angry → ashamed

⑤ anxious → calm

Mike는 화면에서 깜빡이는 커서를 응시했고, 매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은 더 깊이 가라앉았다. 그는 계속해서 마지막 문장을 고쳐 썼지만, 어느 것도 맞게 느껴지지 않았다. 끝마쳐야 한다는 압박감이 서서히 증가했고, 거의 끝날 것 같았지만,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때, 정적 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였다. 서둘러 그는 문장 하나를 쳤다. 커다란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다. "바로 이거야! 완벽해!" Mike가 환희에 차 외치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기쁨에 겨워 손뼉을 쳤다. 마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제자리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마침내 그가 오래도록 꿈꿔 왔던 것을 완성했다.

20.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You probably have quirks in your own memory and feedback loop: the past negative experiences that feel bigger than they should, or the positive affirmations that we can over-interpret. The important thing is to take some conscious control over a process that otherwise proceeds unconsciously, robbing us of complete ownership of how we think about life situations and make decisions. If you are struggling to commit to a relationship because your last one was difficult, you need to remember that your previous one does not define you; the weighting of that may be too heavy in your feedback loop, inhibiting your ability to judge the new relationship on its merits. We need to think about *why* we feel a certain way, whether that is uncertain or over-confident, and try to locate the root of that emotion in the previous experiences that have filled our memory banks and conditioned our feedback loops.

*quirk: 별난 점 **loop: 순환

① 때로는 무의식적 판단이 더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② 주관보다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

③ 우리가 과거 경험에서 받는 영향을 의식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④ 낯선 상황에서 빠르게 판단하려면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

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에 따른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여러분은 아마도 자신의 기억과 피드백 순환 속에 별난 점, 즉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우리가 지나치게 해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확언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며 우리에게서 삶의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대한 완전한 소유를 빼앗아 가는 과정을 일부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지난 관계가 힘들었기 때문에 관계에 헌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이전 관계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여러분의 피드백 순환 내에서 그것의 영향력이 너무 강력하여, (그것이) 새로운 관계를 그 자체의 가치에 따라 판단하는 여러분의 능력을 억제하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 방식이 불확실한 것이든 지나치게 자신감 있는 것이든 간에, '왜' 특정 방식으로 느끼는지 생각해야 하며, 우리의 기억 저장소를 채우고 피드백 순환을 좌우해 온 이전 경험 내에서 그 감정의 근원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21. 밑줄 친 I am a general, my soldiers are the key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One consequence of the hierarchical organization of action is that when we reach for a cup of coffee, we do not need to consciously activate the sequence of muscles to send our arm and hand out toward the cup. Instead, most action plans are made at a higher level — we want to taste the coffee, and our arm, hand, and mouth coordinate to make it so. This means that in a skilled task such as playing the piano, there is a delicate ballet between conscious plans unfolding further up the hierarchy (choosing how fast to play, or how much emphasis to put on particular passages) and the automatic and unconscious aspects of motor control that send our fingers toward the right keys at just the right time. When watching a concert pianist at work, it seems as though their hands and fingers have a life of their own, while the pianist glides above it all, issuing commands from on high. As the celebrated pianist Vladimir Horowitz declared, "I am a general, my soldiers are the keys."

* glide: 미끄러지듯 움직이다

① It is unrealistic to expect precise implementation of every command at all times.

② Musicians must achieve perfect finger independence for outstanding performance.

③ When motor skills operate, they are actually being commanded by higher-level consciousness.

④ Artistic excellence can be achieved only when preceded by tremendous amount of practice.

⑤ A physical reaction occurs automatically, independent of a performer's deliberate intention.

행동의 위계적 구조와 관련된 한 가지 결과는 우리가 커피 한 잔에 손을 뻗을 때, 우리의 팔과 손을 컵 쪽으로 보내기 위해 근육의 순서를 의식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대신 대부분의 동작 계획들은 더 높은 수준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커피를 맛보고 싶고, 우리의 팔, 손 그리고 입은 그렇게 하기 위해 조화하여 움직인다. 이는 피아노 연주 같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작업에서 (얼마나 빠르게 연주할지 혹은 특정 악절에 어느 정도 강조를 둘지를 결정하는) 위계의 상위 단계에서 펼쳐지는 의식적인 계획과 우리의 손가락을 꼭 맞는 순간에 정확한 건반 쪽으로 보내는 운동 제어의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측면 간에 섬세한 발레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주 중인 콘서트 피아니스트를 보고 있으면, 그들의 손과 손가락이 마치 제 생명을 가진 듯하고, 피아니스트는 그 모든 것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높은 곳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유명한 피아니스트 Vladimir Horowitz가 "나는 장군이고, 나의 병사는 건반이다."라고 단언했듯이.

2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Our yearning for belonging is so hardwired that we often try to acquire it by any means possible, including trying to fit in and working hard for approval and acceptance. Not only are these efforts hollow substitutes for belonging, but they are the greatest barriers to belonging. When we work to fit in and be accepted, our "belonging" is unstable. If we do or say something that's true to who we are but outside the expectations or rules of the group, we risk everything. If people don't really know who we are and what we believe or think, there's no true belonging. Because we can feel belonging only if we have the courage to share our most authentic selves with people, our sense of belonging can never be greater than our level of self-acceptance. We can never truly belong if we are betraying ourselves, our ideals, or our values in the process. That is why it's a mistake to think that belonging is passive and simply about joining or "going along" with others. It's not.

* yearning: 갈망 ** hollow: 공허한

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일 때 진정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②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③ 속하려는 집단과 자신의 성향이 잘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④ 때로는 개인의 선호가 집단의 목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⑤ 타인의 비판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자기 수용이 가능해진다.

소속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 너무 생래적이어서, 우리는 흔히 가능한 모든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시도하며, 여기에는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것과 인정과 수용을 얻고자 열심히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노력은 소속에 대한 공허한 대체물일 뿐만 아니라 소속에 대한 가장 큰 장벽이다. 우리가 어울리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소속'은 불안정하다. 만약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진실하지만, 집단의 기대나 규칙 밖에 있는 무언가를 행하거나 말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위태롭게 한다. 만약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거나 생각하는지 정말로 알지 못한다면, 진정한 소속은 없다. 우리가 자신의 가장 진정한 모습을 사람들과 공유할 용기가 있을 때만 소속을 느낄 수 있으므로, 우리의 소속감은 절대 우리의 자기 수용 수준보다 클 수 없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 우리의 이상, 또는 우리의 가치를 배신하고 있다면 결코 진정으로 소속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을 수동적이고 단순히 다른 사람과 함께하거나 '따라가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이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2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Places today have become exhibitions of themselves. Through heavy investment in architecture, art, design, exhibition space, landscaping and various kinds of redevelopment towns, cities and countryside pronounce their possession of various cultural values — such as unchanging nature, the historic past, the dynamic future, multiculturalism, fun and pleasure, artistic creativity or simply stylishness. These cultural values have come to be seen as a place's identity, the possession of which is key to the important task of attracting visitors. And this identity is expected to be easily accessed by those visitors or, to use a currently favoured term in urban design, to be *legible*. Places whose identity seems inaccessible, confusing or contradictory do not present themselves as destinations. They do not, in other words, seem visitable. An identity that is not pointed to in the form of well-restored or beautifully designed buildings, artworks, shopping plazas, streets, walkways or gardens does not compose itself into a view nor offer itself as an 'experience'. To avoid such a fate, places should 'make the most of themselves'. In this way, they can find their niche in the new cultural economy of visitability.

* legible: 알아볼 수 있는 ** niche: 꼭 맞는 역할

① importance of places showcasing a clear cultural identity

② need for preserving traditional lifestyles from urbanization

③ benefits of mixing foreign and local culture to attract tourists

④ impact of globalization in weakening the uniqueness of location

⑤ rol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shaping urban identity and design

오늘날 장소는 스스로에 대한 전시품이 되었다. 건축, 예술, 디자인, 전시 공간, 조경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재개발에 대한 많은 투자를 통해 마을, 도시, 그리고 시골은 변하지 않는 자연, 역사적 과거, 역동적인 미래, 다문화주의, 재미와 즐거움, 예술적 창의성 혹은 단순한 세련됨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소유를 단언한다. 이러한 문화적 가치는 장소의 정체성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이것의 소유는 방문객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과업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그러한 방문객들에 의해 쉽게 접근될 수 있거나, 도시 설계에서 현재 선호되는 용어를 사용하자면,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그것의 정체성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혼란스럽거나 혹은 모순적으로 보이는 장소는 자신을 목적지로 나타내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곳은 방문할 만해 보이지 않는다. 잘 복원되거나 아름답게 디자인된 건물, 예술품, 쇼핑센터, 거리, 보도, 혹은 정원의 형태로 가리켜지지 않는 정체성은 자신을 하나의 경관으로 구성하지 않고, 자신을 '경험' 으로 제공하지도 않는다. 그러한 운명을 피하려면, 장소는 '자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그곳은 방문 가능성의 새로운 문화 경제 속에서 자신의 꼭 맞는 역할을 찾을 수 있다.

2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For most people, the word "property" just refers to "stuff": land, yes, but also the structures on that land, as well as physical possessions and even intangibles like ideas or radio frequencies. If you can own it, or claim some kind of right to it, it's property. But sociologists and anthropologists have observed that in human societies, property rights systems aren't really about "stuff"; they're about people. More specifically, a property right isn't a relationship between a person and an object, it's an agreement between people *about* the object. And these agreements aren't limited to written deeds and titles, or other property laws in a society. Becher explained that a sociologist like herself "would see property as a kind of social agreement. Property rights certainly exist in writing, in law, and that's part of what they are. But they're really only real to the extent that we respect them. [So, property rights are, in a sense,] claims that people make that get respected by others. So they're always social."

* intangible: 무형 자산 ** deed: 증서

① How Can We Build Agreement When Reforming Property Law?

② Rethinking Property: Understanding It as a Social Agreement

③ The Growing Importance of Protecting Private Property

④ Social Duty: Reframing Possession as Collective Goods

⑤ New Insight on Property as a Timeless Asset

대부분의 사람에게 '재산'이라는 단어는 그저 '물건' 을 의미하는데, 땅도 그렇고, 또한 그 땅 위에 있는 구조물뿐만 아니라 물리적 소유물, 그리고 심지어 아이디어나 무선 주파수와 같은 무형 자산도 그렇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거나, 그것에 대한 일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재산이다. 그러나 사회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인간 사회에서 재산권 체계는 실제로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 왔는데, 그것은 사람에 관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재산권은 사람과 사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물과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합의이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는 서면상의 증서나 소유권 증서, 혹은 사회 내의 기타 재산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Becher는 자신과 같은 사회학자는 '재산을 일종의 사회적 합의로 볼 것이다. 재산권은 분명히 문서나 법률로 존재하며, 그것은 재산권이 무엇인지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산권은 우리가 그것들을 존중하는 한에서만 진짜로 실재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재산권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존중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그것은 항상 사회적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26. Mary Eliza Mahoney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Born in 1845 in Boston, Mary Eliza Mahoney was known as the first African American nurse in the United States. She attended the Phillips School in Boston, one of the first integrated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When she was in her teens, Mahoney knew that she wanted to become a nurse. To work towards her goal, Mahoney began working at the New England Hospital for Women and Children, which operated one of the first nursing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She was admitted to its nursing program in 1878 at the age of 33. Upon graduation, she became a private duty nurse. In 1908, Mahoney co-founded the National Association of Colored Graduate Nurses (NACGN) to promote equality for African American nurses. Recognizing that Mahoney served as an outstanding role model for nurses of all races, NACGN created the Mary Mahoney Award in 1936.

① Boston에 있는 Phillips School을 다녔다.

② 십 대 시절에 간호사가 되기를 원했다.

③ 33살에 간호 프로그램에 합격했다.

④ 1908년에 NACGN을 혼자서 설립했다.

⑤ 1936년에 NACGN은 Mary Mahoney 상을 만들었다.

1845년 Boston에서 태어난 Mary Eliza Mahoney는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간호사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미국 최초의 통합 학교 중 한 곳인 Boston에 있는 Phillips School에 다녔다. 그녀의 십 대 시절에, Mahoney는 자신이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Mahoney는 New England Hospital for Women and Children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이곳은 미국 최초의 간호 학교 중 한 곳을 운영했다. 1878년 그녀는 33살에 그곳의 간호 프로그램에 합격했다. 졸업하자마자, 그녀는 개인 간호사가 되었다. 1908년 Mahoney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간호사의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National Association of Colored Graduate Nurses (NACGN)를 공동 설립했다. Mahoney가 모든 인종의 간호사에게 뛰어난 본보기가 됨을 인정하여, 1936년 NACGN은 Mary Mahoney 상을 만들었다.

2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3점]

The physical act of movement in the morning is not just beneficial for the body — it serves as a powerful stimulant for the brain, ① awakening it from the stillness of sleep and preparing it for the demands of the day. This awakening goes beyond physical health; it plays a critical role in enhancing cognitive function, particularly in the realms of creativity and imagination. One of the key mechanisms ② which this occurs is increased blood flow to the hippocampus, a part of the brain responsible for memory, learning, and the creation of new ideas. The hippocampus, often described as the brain's center for imagination and memory consolidation, thrives on the increased oxygenation and nutrients ③ provided by physical movement. Studies published in journals highlight the positive effects of regular morning exercise on cognitive flexibility and creative thinking, confirming that exercise not only promotes physical health but also stimulates neural plasticity — the brain's ability to reorganize ④ itself by forming new neural connections. This adaptability is essential for creative thought, as it allows individuals ⑤ to approach problems from new angles, make novel associations, and think more differently.

* hippocampus: 해마 ** consolidation: 강화 *** plasticity: 가소성

아침에 움직이는 신체적 행위는 신체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뇌에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하며, 뇌를 수면의 고요에서 깨우고 하루 중 요구되는 일들에 대해 준비시킨다. 이 깨움은 신체적 건강을 넘어서는데, 인지적 기능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창의성과 상상력의 영역에서 그러하다. 이것이 일어나는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는 기억, 학습,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조를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에 혈류가 증가하는 것이다. 자주 뇌의 상상력과 기억력 강화 센터로 묘사되는 해마는 신체 움직임에 의해 제공되는 산소 공급 증가와 영양소로 번성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는 규칙적인 아침 운동이 인지적 융통성과 창의적 사고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데, 운동이 신체 건강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신경 가소성, 즉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을 재구성하는 뇌의 능력을 자극한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이 적응성은 창의적 사고에 필수적인데, 개인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새로운 연관성을 만들고, 더 다르게 생각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3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Information is an important ingredient for good decision – making. And so, a variety of guardrails ① exist that shape what information is available. For instance, in the United States, corporate disclosure laws ② limit what a company's executives can share publicly and when. Share too much information and you risk being fined. In other contexts, the reverse is true, and one is ③ forbidden to make public certain information. Pharmaceutical companies need to disclose possible side effects for the drugs they manufacture and the food industry needs to put nutritional labels on most of their products. Sometimes, such a *l'obligation d'information*, as the French call it poetically, may apply to a company's clients. Insurance policies are an example. The insured is typically under a duty to ④ disclose material facts that affect the risk to the insurer. In a similar way, the state itself makes available a wide variety of information to help individuals make better decisions. Laws are made ⑤ public so that citizens can obey them, at least in democratic states. Public registers, such as for corporations or landownership, help people decide whether to engage in a business transaction.

* pharmaceutical: 제약의

정보는 좋은 의사 결정을 위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이용 가능한지를 정하는 다양한 가드레일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기업 공시법은 회사의 경영진이 무엇을 그리고 언제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지를 제한한다. 너무 많은 정보를 공유하면 여러분은 벌금을 부과받을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다른 맥락에서는 반대가 사실이며 어떤 사람은 특정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금지된다(→ 요구된다). 제약 회사는 그들이 제조하는 약의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공개해야 하며, 식품 산업은 그들 제품 대부분에 영양 (표기) 라벨을 붙여야 한다. 때때로, 프랑스 사람들이 시적으로 부르는 그러한 'l'obligation d'information'은 회사의 고객에게 적용될 수도 있다. 보험 증권이 한 예시이다. 피보험자는 일반적으로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보험 회사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비슷하게, 국가 자체도 개인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기 위해 매우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시민들이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것은 공개되며,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러하다. 기업이나 토지 소유권에 관한 것 등의 공공 등록부는 사람들이 사업 거래에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31~3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1. As a general rule, when the individuals of a population encounter a new environmental stress, some individuals in the population will die prematurely and some individuals will survive. If the reason for their survival (such as a slightly enhanced ability or trait) can be passed on to their offspring (that is, it's genetically encoded), then the next generation should be better able to withstand the newly encountered environmental stress, and the population overall will be less susceptible to it. Therefore, the key to the ability of a population to survive by adaptation lies in the _____ with which the next generation, the more resistant generation, is produced by the survivors of this generation. It follows that those species capable of producing a new generation very quickly should be better able to respond to a stress very quickly. Those species that require more time for reproduction will be slower to adapt to the stress because of the additional time needed for them to produce stress-tolerant offspring.

* susceptible: 영향을 받기 쉬운

① rapidity
② precision
③ simplicity
④ consistency
⑤ randomness

일반적 규칙으로, 한 개체군의 개체가 새로운 환경 스트레스에 맞닥뜨렸을 때, 그 개체군의 일부 개체는 정상보다 이르게 사망하고 일부 개체는 생존할 것이다. 만일 (약간 향상된 능력 또는 형질 같은) 그들이 생존할 수 있던 이유가 자신들의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즉, 유전적으로 부호화된다면), 그렇다면 다음 세대는 새로 맞닥뜨리는 환경 스트레스를 더 잘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전체 개체군이 그것에 영향을 받기가 덜 쉬울 것이다. 그러므로, 한 개체군이 적응을 통해 생존하는 능력의 핵심은 이 세대의 생존 개체에 의해 다음 세대, 즉 더 저항성이 있는 세대가 생산되는 신속성에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세대를 매우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은 스트레스에 매우 빠르게 더 잘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번식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러한 종은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것이 더 느릴 것인데, 그들이 스트레스에 내성이 있는 자손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추가 시간 때문이다.

32. The digital age has brought remarkable advancements in communication. A message that might have taken weeks to deliver by mail can now be sent in seconds. Yet, in this shift toward efficiency, we've lost something essential: the richness of face-to-face interaction. Think about it — when you communicate through a text or email, you're missing out on nonverbal cues like facial expressions, tone of voice, and body language. These elements carry emotional weight, helping us to interpret meaning and intent. Without them, ou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is often incomplete, leading to confusion and frustration. Take, for instance, a short reply to an email: "Okay." Depending on the context, the sender's intention might be neutral, annoyed, or even sarcastic. But without vocal inflections or facial expressions to guide us, we are left guessing. This is why digital communication requires heightened emotional awareness — not only to express ourselves effectively but also to decode _____.

* inflection: 억양

① the source materials we refer to

② the specific subject being personified

③ the grammatical structures in a speech

④ the emotions behind the words we receive

⑤ the newly-coined words used in the digital era

디지털 시대는 의사소통에 있어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다. 우편으로 전달하는 데 몇 주가 걸렸을 수도 있는 메시지를 이제 몇 초 안에 보낼 수 있다. 그러나 효율성을 향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무언가, 즉 대면 상호 작용의 풍부함을 잃었다. 여러분이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소통할 때, 표정, 목소리의 어조, 그리고 몸짓 언어와 같은 비언어적 단서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이러한 요소들은 감정적인 중요성을 지니며, 우리가 의미와 의도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것들 없이는 타인의 감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자주 불완전하며 혼란과 좌절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이메일에 대한 짧은 답장인 '알았어.'를 보라. 맥락에 따라 발신자의 의도는 중립적일 수도, 짜증이 났을 수도, 혹은 심지어 비꼬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를 안내해 줄 목소리의 억양이나 표정 없이, 우리는 추측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디지털 의사소통이 고도의 감정 인식을 요구하는 이유이며, 이는 우리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신한 말 이면에 있는 감정을 해독하기 위해서다.

33. Our epistemic relation to self-determination is open to error and, thus, subjective. Turning oneself into an agent of a particular kind by conceiving of oneself as that type of agent does not suffice to make it the case that _____. Just imagine someone who believes himself to be a natural born tango dancer. He has watched many videos about tango dancing and practices dancing by himself for many years. Having prepared himself for a glorious entrance on the international scene, he travels to Buenos Aires and shows up at Maldita Milonga to show his skills. Unbeknownst to him, though, his dancing (if dancing it be) does not even remotely resemble tango, and nothing he does on stage can be recognized as tango dancing. Hence, while he conceived of himself as a tango dancer and did many things in light of that self-conception (including buying a ticket to Buenos Aires, dressing up, consuming hours of tango videos, reading books about tango, learning Spanish, etc.), he failed at meeting some of the minimal norms of actually being a tango dancer at all. [3점]

* epistemic: 인식론의 ** suffice: 충분하다

① one downplays others' feedback

② one actually is that type of agent

③ one's innate ability precedes mastery

④ one is capable of setting priorities

⑤ one fails to stick to one's goal

자기 결정에 대한 우리의 인식론적 관계는 오류에 빠지기 쉬우며, 따라서 주관적이다. 자신을 그러한 유형의 행위자로 생각함으로써 자신을 특정 유형의 행위자로 바꾸는 것은 한 사람이 실제로 그러한 유형의 행위자라는 것이 사실이 되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자신을 타고난 탱고 무용수라고 믿는 사람을 그저 상상해 보라. 그는 탱고 춤에 관한 많은 영상을 봐 왔고, 수년간 혼자서 춤을 연습한다. 국제 무대에서의 화려한 등장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그는 Buenos Aires로 가서 자신의 기량을 보여 주기 위해 Maldita Milonga에 등장한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것은, 그의 춤은 (그것이 춤이라고 할 수 있다면) 탱고와 조금도 닮지 않았고, 그가 무대에서 하는 어떤 것도 탱고 춤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자신을 탱고 무용수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자기 개념에 비추어 (Buenos Aires로 가는 표를 사고, 옷을 차려입고, 수 시간의 탱고 영상을 소비하고, 탱고에 관한 책을 읽고, 스페인어를 배우는 것 등을 포함하여) 많은 것을 했지만, 그는 실제로 탱고 무용수가 되는 것의 최소한의 기준 중 일부조차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

34. What makes social attention distinct, and more far-reaching than many other forms of social connection, is that it can _____. You can't have a *relationship* with a celebrity unless you know him and he knows you. But a celebrity *can* be the object of your social attention. And this kind of one-sided social attention isn't something trivial or secondary, but an enormous part of our lives. In tenth grade, you can spend most of your waking hours daydreaming about a high school senior you have a crush on. As an adult, you might find yourself having imaginary arguments in your head with a certain media personality. Think for a moment of the pantheon of strangers we have in our heads that we put our social attention on — from athletes we root for or jeer, to celebrities, to people whose struggle we encounter in the news. An enormous part of our social attention falls upon people who do not know us at all. [3점]

* pantheon: 만신전(萬神殿) ** jeer: 야유하다

① focus exclusively on figures we admire

② depend on someone's in-person presence

③ deepen our mutual relationship over time

④ fade away without constant reinforcement

⑤ live outside of the actual relationships we have

사회적 관심을 구별되게 하는 것, 그리고 다른 많은 형태의 사회적 관계보다 더 멀리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맺고 있는 실제 관계 밖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분이 한 유명 인사를 알고 그가 여러분을 알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하지만 한 유명 인사는 여러분의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일방적인 사회적 관심은 사소하거나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10학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반한 고등학교 선배에 대한 공상에 잠겨 깨어 있는 시간 대부분을 보낼 수도 있다. 성인일 때에는, 특정 미디어의 인물과 머릿속으로 가상의 언쟁을 벌이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응원하거나 야유하는 운동선수부터, 유명 인사,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까지,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가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는 낯선 이들의 만신전(萬神殿)을 잠시 생각해 보라. 우리의 사회적 관심 중 상당 부분은 우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35.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We often use the word *ignorance* to denote a primitive or foolish set of beliefs. In fact, I would say that "explanation" is often primitive or foolish, and the recognition of ignorance is the beginning of scientific discourse. ① When we admit that something is unknown and inexplicable, then we admit also that it is worthy of investigation. ② David Helfand, the astronomer, traces how our view of the wind evolved from the primitive to the scientific: first "the wind is angry," followed by "the wind god is angry," and finally "the wind is a measurable form of energy." ③ The first two statements provide a complete explanation but are clearly ignorant; the third shows our ignorance (we can't predict or alter the weather yet) but is surely less ignorant. ④ It is undeniable that ignorance stands as the greatest barrier to scientific discovery and thus it fails to function as a support to scientists. ⑤ Explanation rather than ignorance is the hallmark of intellectual narrowness.

우리는 원시적이거나 어리석은 믿음의 모음을 나타내는 데 자주 '무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사실, 나는 '설명'이 흔히 원시적이거나 어리석으며, 무지에 대한 인식이 과학적 담론의 시작이라고 말할 것이다. 무언가가 알려지지 않았고 설명할 수 없다고 우리가 인정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이 조사할 가치가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한다. 천문학자인 David Helfand는 바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원시적인 것에서 과학적인 것으로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추적하는데, 처음에는 '바람이 화가 났다,' 뒤이어 '바람의 신이 화가 났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람은 측정 가능한 에너지의 한 형태다'이다. 처음 두 진술은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지만 분명히 무지하며, 세 번째는 우리의 무지를 보여 주지만 (무지가 과학적 발견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로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그러므로 그것이 과학자들에게 도움으로 기능하는 것에는 실패한다.) 무지보다는 설명이 지적 편협함의 특징이다.

[36~37]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6.

Some propositions about lotteries are extremely likely to be true. Consider the proposition 'any given ticket in a ten-million ticket lottery is a losing ticket'.

(A) If we want to avoid conceding that the scope of our knowledge is much more limited than usually supposed, there must be some difference between the probabilistic evidence we have about the lottery and evidence for regular things that we do know.

(B) Despite being overwhelmingly likely to be true, many philosophers think that such propositions, based on probabilities alone, are different from other propositions we regularly rely upon. It's been popular to suppose, for instance, that we don't *know* that we have lost the lottery just by reflecting on how unlikely winning is.

(C) This is puzzling, because there are *many* things we take ourselves to know even though we presumably have more than a one-in-ten-million chance of being wrong. For example, you might know you will attend a meeting later, even though occasionally meetings get cancelled unexpectedly — and surely more frequently than one-in-ten-million meetings! [3점]

* proposition: 명제 ** concede: 인정하다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복권에 관한 일부 명제들은 참일 가능성이 몹시 높다. '천만 장의 복권 중에서 주어진 어떤 복권이든 당첨이 안 되는 복권이다'라는 명제를 고려해 보라.

(B) 참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철학자는 확률에만 근거하고 있는 그러한 명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 다른 명제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얼마나 당첨의 가능성이 낮은지를 그저 숙고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C) 이것은 헷갈리는데, 틀릴 가능성이 짐작건대 천만분의 일보다 높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다고 믿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때때로 회의가 예기치 못하게 취소되고, 분명 천만 번의 회의 중 한 번 보다 더 자주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나중에 회의에 참석하리라는 것을 알 수도 있다!

(A) 만약 우리가 우리 지식의 범위가 보통 추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가 복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확률적 증거와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에 관한 증거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어야만 한다.

37.

In everyday life, most people think that media effects are things that show up during a media exposure or immediately afterward.

(A) This is an example of a media message triggering an immediate effect — a buying behavior — on you. But let's say you did not click on the buy now button to buy the product; does this mean there was no media effect? Perhaps, but also perhaps not.

(B) Of course some effects do show up immediately, but other effects may take a long time to manifest themselves. Let's say you see an ad for a product on a website and you click on a buy now button to buy that product.

(C) If you continually expose yourself to ads in the media, you may gradually over time come to believe that you have more needs than you really have and that all of those needs can be easily satisfied by buying particular products. This is a long-term effect on what you believe; it cannot be attributed to any one media exposure but instead gradually builds up in a steady drip-drip-drip manner over time.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미디어 효과란 미디어 노출 중 혹은 그 직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B) 물론 어떤 효과는 정말 즉시 나타나지만, 다른 효과는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여러분이 웹사이트에서 어떤 제품에 대한 광고를 보고 그 제품을 사기 위해 바로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했다고 가정해 보자.

(A) 이는 미디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즉각적인 효과, 즉 구매 행동을 유발한 예시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바로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는 미디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럴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C) 만일 여러분이 미디어 속 광고에 자신을 계속해서 노출시킨다면, 여러분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로 가진 욕구보다 더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되고 그러한 모든 욕구는 특정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쉽게 충족될 수 있다고 믿게 될지도 모른다. 이것이 여러분이 믿는 것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이며, 그것은 어느 하나의 미디어 노출 때문이라고 할 수 없고 대신에 시간이 지나면서 뚝-뚝-뚝 떨어지는 꾸준한 방식으로 점점 쌓인다.

[38~39]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38.

But with the emerging mass automobility in the first decades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negative effects of human agency behind the steering wheel — accidents for example — became a serious topic of concern.

Since its invention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 automobile remained a machine that had to be controlled by a human driver. (①) Without human control of steering wheel, gas pedal and brakes none of the billions of miles could have been traversed by the billions of cars in the world: A car always needed the driving skills of a human to fulfill its function. (②) Without a driver, it would have been only an immobile artifact, left to stand still in its parking lot. (③) In the early years of motoring, this necessity of a human driver was not seen as a barrier. (④) Manual driving promised to fulfill the human dream of individual mobility and freedom, of self-guidance, of autonomy. (⑤) It is no surprise that the fantasy of a self-driving car, a car that can navigate without a human driver, can be dated to this period. [3점]

* steering wheel: (자동차의) 운전대 ** traverse: 횡단하다

*** artifact: 인공물

19세기 말 자동차의 발명 이후로, 자동차는 인간 운전자에 의해 조종되어야 하는 기계로 남아 있었다. 운전대, 가속 페달, 그리고 브레이크에 대한 인간 조종 없이는 수십억 마일 중 어느 한 마일도 전 세계의 수십억 대의 자동차에 의해 횡단될 수 없었을 것이고, 자동차가 그것의 기능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인간의 운전 기술이 필요했다. 운전자 없이는, 그것은 그저 주차장에 가만히 있도록 남겨진 움직일 수 없는 인공물에 불과했을 것이다. 자동차 운행 초창기에, 인간 운전자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은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았다. 인력을 요하는 운전은 개인 기동성과 자유, 자기 안내, 자율성에 대한 인간의 꿈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20세기의 첫 몇십 년 중 자동차에 의한 대규모 이동성이 생겨나면서, 가령 (자동차) 사고와 같은 운전대 뒤에 있는 인간 행위자의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우려의 주제가 되었다. 인간 운전자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차라는 자율 주행차에 대한 환상이 이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39.

If we had to constantly think carefully about every one of those stimuli (or even a small subset thereof), in order to understand its nature and function, we would never get anything done!

That the brain had limitations on the amount of information processing it could handle was not news to psychologists. Indeed, about 15 years earlier, Miller showed this with his famous paper on the limited capacity of short-term memory. (①) What *was* novel was the connection between categorization and stereotyping, and that categorization was an inevitable aspect of human cognition. (②) At any given second, there are hundreds, even thousands, of different stimuli that can be perceived in our immediate environment. (③) Instead, we learn about different stimuli, and tend to group them in terms of common features, attributes, or functions. (④) This categorization process then becomes so well practiced as to become automatic, and it frees up our consciousness to attend to things that are novel in our environment, or to our current task. (⑤) Thus, categorization helps us reduce the complexity of the stimuli in our social environment.

뇌가 다룰 수 있는 정보 처리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심리학자들에게 새로운 소식이 아니었다. 실은, 약 15년 전에 Miller는 단기 기억의 제한된 용량에 관한 그의 유명한 논문으로 이를 보여 주었다. 새로'웠던' 것은 범주화와 고정 관념화 사이의 연결이라는 점, 그리고 범주화가 인간 인지의 필연적인 측면이라는 점이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인접한 환경에는 인식될 수 있는 수백, 심지어 수천 개의 서로 다른 자극이 있다. 만약 우리가 그 본질과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그러한 모든 자극 하나하나 (혹은 심지어 그것의 작은 부분 집합)에 대해 계속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해내지 못할 것이다! 대신 우리는 다양한 자극에 대해 배우고, 그것들을 공통된 특징, 속성, 또는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범주화 과정은 자동화될 정도로 아주 잘 숙련되어, 우리 환경의 새로운 것들 혹은 우리의 현재 과업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의식을 자유롭게 해 준다. 따라서 범주화는 우리가 사회적 환경에서의 자극의 복잡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40.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Cinema and law share the same subjects and audience. Rather than an abstract desire for truth as a value in itself, the law deals with the messiness of human relations. Both disciplines struggle with what it means to be human and try to communicate to us something about our existence; both are human artifacts directed at man. Indeed, foundational to law is its anxiety about human nature: man desires freedom but is simultaneously too violent to exist in a state of nature without a regime of commands and prohibitions. However, there is also an important difference here that makes a study of the interaction between cinema and law interesting: while cinema expresses man's affective life, the law keeps it in check. It tries to ensure that we are not overwhelmed and destroyed by our desires and drives. The law obsessively tries to suppress affects, fearing the horror of their consequences, whereas cinema introduces us to our affects, often forcing us to identify the most unbearable ones in ourselves.

* regime: 체제 ** suppress: 억제하다

⬇

Cinema and law are both human creations that explore ___(A)___, yet they differ in how they handle emotion — cinema has us confront it, and law ___(B)___ limits on it.

(A) (B)

① symbols ····· places ② symbols ····· reinforces

③ nature ····· removes ④ humanity ····· imposes

⑤ humanity ····· undermines

영화와 법은 동일한 주제와 청중을 공유한다. 법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진리에 대한 추상적인 욕구보다는 인간관계의 혼란스러움을 다룬다. 두 분야 모두 인간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고심하며, 우리에게 우리 존재에 대한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데, 즉 둘 다 인간을 향한 인간의 인공물이다. 실제로, 인간 본성에 대한 법의 불안은 법의 기초가 된다. 인간은 자유를 원하지만 동시에 명령과 금지의 체제 없이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기에는 지나치게 폭력적이다. 그러나 또한 여기에는 영화와 법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를 흥미롭게 하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영화가 인간의 감정적 삶을 표현하는 반면, 법은 그것을 통제한다. 법은 우리가 우리의 욕구와 충동에 의해 압도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려고 한다. 법은 감정의 결과에 대한 공포를 두려워하며 강박적으로 감정을 억제하려 하는 반면, 영화는 우리에게 자신의 감정을 접하게 하며, 자주 우리 자신 안의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을 알아보게 한다.

→ 영화와 법 모두 인간성을 탐구하는 인간의 창작물이지만, 그들은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서는 다른데, 영화는 우리가 그것과 마주하게 하고, 법은 그것에 제한을 부과한다.

[41~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Few pick up a novel and criticize it because the situations it describes and the people it contains never existed in real life. Perhaps even when we *should* criticize fiction for giving us inaccurate or biased views of the state of the world, it generally (a) escapes our scorn. It's only fiction, we say. But of course fiction is more than just something made up. If it were only that, we would not bother engaging with it, and it would not (b) occupy such a large part of our lives. Humans are drawn to fiction, to invented stories, in a way unique among animals. If we think about this, it may seem (c) odd — why should we be interested in reading or watching on screen a story that never happened, and in many cases that *could never* happen, the travails of people who never existed and could never exist? Why do we enjoy this? What do we get out of it? We're not learning anything about the world, we're not gaining any kind of (d) useful experience that will help us navigate our lives more effectively, we're not learning any new skill or developing any new material. Most of us of course will argue that there is a great deal of value in engaging with fiction and other kinds of art, even though these things may teach us nothing about the world or generate art-independent skills. After all, we spend (e) insignificant amounts of our time engaging with such fiction. It is no surprise that films, television and sports, video games, novels, and the like, are billion-dollar industries.

* scorn: 비웃음 ** travail: 고생

소설을 집어 들어 그것이 묘사하는 상황과 그것이 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삶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쩌면 우리가 픽션이 우리에게 세상의 상태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견해를 주는 것에 대해 비판'해야 할' 때조차,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비웃음에서 벗어난다. 그것은 단지 픽션일 뿐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하지만 물론 픽션은 단지 지어낸 것 이상이다. 만약 그것이 단지 그것뿐이라면, 우리는 굳이 그것에 몰두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동물 중에서 고유한 방식으로, 픽션에, 즉 지어낸 이야기에 끌린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일어난 적이 없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와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사람들의 고생을 읽는 것 또는 화면에서 보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이것을 즐기는가?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얻는가? 우리는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배우고 있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효과적으로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어떤 종류의 유용한 경험도 얻고 있지 않으며,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어떤 새로운 자료도 개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예술과 무관한 기술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대부분은 픽션과 다른 종류의 예술에 몰두하는 것에 많은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그러한 픽션에 몰두하는 데 우리 시간 중 얼마 안 되는(→ 많은) 부분을 보낸다. 영화, TV와 스포츠, 비디오 게임, 소설, 그리고 그 비슷한 것들이 십억 달러 산업들이라는 것은 놀랍지 않다.

41.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Drawn to the Unreal: Our Fascination with Fiction
② What True Stories Can Teach Us About Life
③ The Science Behind Reading and Its Effects
④ Can Reading Fiction Help Shape Our Identity?
⑤ Fiction as a Tool for Improving Critical Thinking

42. 밑줄 친 (a)~(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On a bright fall day, a young boy named Jay visited the pumpkin festival with his grandfather. There, he became fascinated by the giant, prize-winning pumpkins on display. Jay made up his mind to grow an enormous pumpkin himself. With stars sparkling in his eyes, (a) he eagerly shared his dream with his grandfather that he wanted to grow the next show-winning pumpkin.

(B)

When Jay found out what the squirrel had done, he searched through the soil but found nothing. His dream was crushed! Still, his grandfather encouraged him to plant some pie pumpkin seeds he had on hand. Jay agreed and planted them. After some time, small pumpkins filled the garden. The family baked delicious pies using the pumpkins Jay had harvested. Despite the setback, Jay found joy in the harvest and the time spent with his family. Jay promised himself that next year, (b) he would try again to grow the biggest pumpkin of all. * squirrel: 다람쥐

(C)

Though his grandfather reminded him that a little luck was also needed, Jay remained confident. He carefully kept the seeds he had bought and spent the winter thinking about how he would grow his pumpkins. When spring finally arrived, (c) he received help from his grandfather. He used his tractor to prepare the garden with Jay. Jay eagerly planted the seeds and waited with anticipation for them to grow. But then, disaster struck. A squirrel dug up and ate every single seed.

(D)

Seeing Jay's excitement, (d) he promised to help him grow a giant pumpkin. When they visited a pumpkin farm to buy seeds, he explained the basics to Jay: choose a large variety and plant seeds from the biggest pumpkins. He also advised planting them in late May, when the soil is warm, by forming small hills about eight inches high and placing six to eight seeds in each. Following his grandfather's advice, (e) he picked out a few promising pumpkin seeds.

43.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B) - (D) - (C) ② (C) - (B) - (D)
③ (C) - (D) - (B) ④ (D) - (B) - (C)
⑤ (D) - (C) - (B)

44. 밑줄 친 (a)~(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45.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Jay는 거대한 호박을 직접 기르기로 결심했다.
② 가족은 Jay가 수확한 호박으로 파이를 구웠다.
③ Jay는 호박을 어떻게 기를지 생각하며 겨울을 보냈다.
④ 다람쥐가 모든 씨앗을 파내어 먹었다.
⑤ 할아버지는 5월 초에 씨앗을 심으라고 조언했다.

(A) 어느 밝은 가을날, Jay라는 이름의 한 어린 소년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함께 호박 축제에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전시된 거대한, 상을 받은 호박에 매료되었다. Jay는 거대한 호박을 직접 기르기로 결심했다. 눈빛이 별처럼 반짝이며, 그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다음으로 상을 받을 호박을 기르고 싶다는 꿈을 열렬히 공유했다.

(D) Jay의 신난 상태를 보고, 그는 그가 거대한 호박 기르는 것을 도와주기로 약속했다. 그들이 씨앗을 사기 위해 호박 농장을 방문했을 때, 그는 Jay에게 기본적인 것을 설명했는데, 큰 품종을 고르고 가장 큰 호박에서 나온 씨앗을 심으라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약 8인치 높이의 작은 흙무더기를 만들고 각각에 여섯 개에서 여덟 개의 씨앗을 배치해서 토양이 따뜻한 5월 말에 씨앗을 심으라고 조언했다. 할아버지의 조언을 따라서, 그는 몇 개의 조짐이 좋은 호박 씨앗을 골랐다.

(C) 할아버지가 약간의 운 또한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알려 주었지만, Jay는 여전히 자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샀던 씨앗을 신중히 보관했고, 호박을 어떻게 기를지 생각하며 겨울을 보냈다. 마침내 봄이 되었을 때, 그는 할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는 Jay와 텃밭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트랙터를 사용했다. Jay는 열심히 씨앗을 심고 기대하며 씨앗이 자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때, 엄청난 불행이 발생했다. 다람쥐 한 마리가 모든 씨앗을 파내어 먹어 버렸다.

(B) Jay가 다람쥐가 한 짓을 발견했을 때, 그는 흙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의 꿈이 부서졌다! 그래도, 그의 할아버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파이 호박 씨앗을 심도록 그를 격려했다. Jay는 동의했고 그것을 심었다. 얼마 후에, 작은 호박이 텃밭을 가득 채웠다. 가족은 Jay가 수확한 호박을 이용해 맛있는 파이를 구웠다. 방해에도 불구하고, Jay는 수확과 가족과 보낸 시간에서 즐거움을 발견했다. Jay는 내년에 그가 모든 호박 중 가장 큰 것을 기르는 것에 다시 도전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